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관계연구

김귀분¹ · 최재은² · 석소현³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¹, 경희의료원 부속병원 간호사²,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조교수³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Family Support, Morale,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Kim, Kwuy Bun¹ · Choi, Jae Eun² · Sok, So Hyune³

¹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²Nurse, Kyung Hee Medical Center, ³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correlations among family support, morale, an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Methods:** Descriptive correlational study design was used. The subjects were 131 elderly people 65 and older who have lived in Seoul and other three citi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mean, SD, t-test,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by using the SPSS 11.0 program. **Results:** First, the mean of family support was 3.71, morale 3.25, and quality of life 3.02 respectively.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family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r=.264, p=.00$), the correlation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oral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484, p=.00$), and the correlation between family support and morale was also statistically significant($r=.430, p=.00$). **Conclusion:** Family support for the elderly in the study was confirmed as the primary important concept which can positively maintain and promote the quality of their life. Also, the correlation between morale and family support was verified as significant. Further study is needed to develop a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morale improvement with a network of family support with their children, ultimately for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Key Words : Family support, Morale, Quality of life, Ag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의학의 급속한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 평균수명의 연장, 사망률의 저하, 출산율의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그 절대 수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대한

비율 면에서도 크게 늘어나 2000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2%를 차지하여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4년 현재 8.6%로, 2019년에는 14.4%로 노령사회,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이처럼 서구보다 급속한 속도로 고령사회화되어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하

Corresponding address: Sok, So Hyune,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144, Fax: 82-2-961-9398, E-mail: 5977sok@khu.ac.kr

투고일 2006년 8월 8일 심사외리일 2006년 8월 11일 심사완료일 2007년 6월 4일

면 활기차고 보람 있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노인 당사자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노인은 신체, 생리적인 기능이 감퇴되어 건강수준이 저하될 뿐 아니라 질병과 죽음에 대한 삶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자아 적응능력이 저하되며, 자녀 출가라는 가족관계의 역할변화, 그리고 은퇴와 관련된 수입의 감소, 역할 및 사회적 유대관계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더욱이 급속한 사회의 변화속도에 적응할 수 없는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고 노인 스스로 사회참여의 폭을 줄이므로 많은 노인들이 더 이상 자신의 삶의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여, 노인들의 자존감은 저하되고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 인생의 어느 단계보다 주관적인 삶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높다(Kim, Kim, Kim, Lee, & Kim, 1998).

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노화에 따른 역할 상실, 신체 및 정신건강의 퇴화 그리고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역할이 바뀌므로 신체적 돌봄, 정서적 안정, 의사결정에 대한 도움, 경제적 능력 등,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일차적으로는 가족에게 의존하게 된다(Moon, 1996). 가족은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 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해 완충지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있어 가족의 기능은 상당히 중요하다(Choi, 1998). 가족지지는 개인이 순조롭게 위기에 적응하도록 일생을 통해 사회적 지지체로서 중요성을 갖게 되므로 노인이 인지하는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나 도움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노인에게 힘을 주고 건강을 위한 긍정적 반응으로 작용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Lim, 2000). 따라서 노인에 있어 가장 일차적이며 중요한 지지는 가족지지로써, 이는 장기간 계속되는 문제나 갈등을 중재하는 사회·심리적 변수로 일상생활의 적응 및 삶의 질에 중요하며, 성공적인 노화로 이끈다. 또한, 노인의 삶의 질은 노인 자신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과 생활역사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상태, 즉 가족환경을 인위적으로 개선해 줄 때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Kim et al., 1998).

한편, 삶의 질은 1980년대부터 간호행위와 건강관리의 주요목표로 대두되면서 질병과 관련되어 보고되기 시작했다(Yun, 2005). 1980년대부터 한국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보면 노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지지, 건강증진, 생활양식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주로 도시나 양로원에 살고 있는 노인 또는 특수 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Kim et al., 1998). 그러나 한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현재 생활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이 중요하기 때문에 삶의 질은 행복, 만족, 긍정적인 정서, 사기 등의 개념이 내포된 주관적 안녕이라고 할 수 있다(Kim & Lee, 2000).

그 중 사기(morale)는 노인에게서 삶의 만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는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한 개인적 태도에 대한 정서적 내용이며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느낌의 반영이다(Chown, 1977). Ware와 Sherbourne(1993)에 의하면 노화보다는 건강이나 재정적인 상태 등이 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기란 개인의 총체적인 안녕에 있어서 주된 중요성을 가지며,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대상자들의 안녕 증진을 위한 인간의 총체적인 면에 가치를 두는 개념(Yun, 2005)으로 간호학에서도 다양하게 사용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국내의 연구는 노인의 사기에 대한 연구(Moon, 1996; Lee, 1998; Song, 2002; Rhu, 2004),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에 대한 연구(Choi, 1998; Park, 2000; Shin, 1996) 등이 대체로 노인건강상태와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어 가족 지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다룬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위하여 중요한 개념인 가족지지, 사기,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곧 성공적인 노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의 지표로써 사기를 탐색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방안을 계획함에 있어서 노인의 생존

을 위해서 필수적인 가족지지와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게 가장 가깝고 중요한 지지체제로 볼 수 있는 가족지지와 주관적인 안녕의 한 부분인 사기와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노인의 질적인 삶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 정도를 파악한다.
- 2)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한다.
- 3)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 정도를 비교한다.

3. 용어정의

1) 가족지지

가족지지만 가족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가족체제가 가족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돌보아주며 사랑하고 존중하며 가치감을 갖도록 해주는 사랑과 지지의 주요기능을 말한다(Hamburg, 1967). 본 연구에서는 Cobb(1976)가 개발한 도구를 Kang(1984)이 수정 보완한 도구에 의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2) 사기

사기란 의욕이나 자신감 따위로 충만하여 곱힐 줄 모르는 기세이다(Standard Korean Dictionary, 2006). 본 연구에서는 Lawton(1977)의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을 Moon(1996)이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3) 삶의 질

삶의 질이란 인간 생활의 질 문제인 인간 삶의 정도와 가치를 다루는 것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 경제

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안녕을 의미한다(Kim et al., 1998). 본 연구에서는 선행 문헌들(Choi, 1997; Kim et al., 1998; Yun, 2005)에서 노인의 삶의 질 측정도구로 주로 사용하였던 Ware와 Sherbourne(1993)에 의해 개발된 Medical Outcomes Study Short Form 36(SF-36)을 Ko 등(1997)이 번안하여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그 도구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하는 가족지지와 사기, 삶의 질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세 지역을 임의로 선정하여 종교 단체 모임, 노인정, 친구 모임의 재가노인을 유한모집단으로 하여 임의 표출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참여를 수락한 65세 이상, 남녀 노인 131명으로,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MMSE)으로 측정하여 총점 30점 만점에서 24점 이상을 얻은 자로 본 설문조사에 응답할 수 있는 자였다. 24점 이상으로 기준을 정한 이유는 총점 30점 만점에서 19점 이하이면 치매, 20-23점 사이는 치매 의심, 24점 이상은 정상으로 판별한다는 Choi(2000)의 문헌에 근거하여 실시하였다. 대상자수는 Cohen(1988)의 공식을 기초로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였다.

3. 연구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교육정도, 종교, 동

거유형, 직업, 한 달 용돈 등 11문항을 포함시켰다.

1) 지각한 가족지지 측정도구

가족지지 측정도구는 Cobb(1976)가 개발하고 Kang (1984)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11문항으로 긍정적 문항은 동의 및 비동의 정도에 따라 ‘항상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을 주는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였다. 문항평균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이 5점 척도이므로 문항평균으로 분석하였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 이었다.

2) 사기 측정도구

사기 측정도구는 Lawton(1977)이 개발한 필라델피아 노인 연구소의 사기 척도(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PGCMS)를 Moon(1996)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로 총17개 문항이다. Lawton의 3점 척도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5점 척도로 수정하였으며, 문항평균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문항이 5점 척도이므로 문항평균으로 분석하였다. 개발 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다.

3) 삶의 질 측정도구

Wares와 Sherbourne(1993)이 개발한 SF-36(Short Form 36)을 Ko 등(1997)이 번안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8개영역(신체적 기능, 사회적 기능, 신체적 역할 제한, 감정적 역할 제한, 정신건강, 활력, 통증, 일반건강)의 36개의 문항으로서 본 연구에 맞게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평균범위는 1-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전체 문항이 5점 척도이므로 문항평균으로 분석하였다. 개발당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4$ 였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9$ 였다.

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직접 노인에게 개별적으로 읽어주고 노인의 응답에 따라 기록하였으며, 노인 스스로가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경우는 설문지를 읽고 스스로 기록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에 소요된 시간은 20-40분이었고, 설문지는 140부를 배포하여 14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자료처리에 부적절한 9부를 제외한 131부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였다.
- 2)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3)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의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노인의 일반적 특성

노인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노인의 연령은 65-69세 61.1%로 가장 많았고 성별은 남자 42.7%, 여자 57.3%이었다. 종교는 개신교 27.5%, 불교가 30.5%로 나타났고, 학력은 중, 고졸이 38.9%로 가장 많았다. 과거 직업은 전문직 42.0%, 전업주부 38.2%로 나타났고 현재 직업은 대부분(76.3%)이 없었다. 생활비 부담은 자신이 60.3%로 가장 많았고 한 달 용돈은 20만원 이하가 61.8%를 차지하였다. 주거형태는 자가 83.2%이었고, 자녀수는 3-4명이 61.0%로 가장 많았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3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Age (year)	65-69	80	61.1
	70-79	40	30.5
	Above 80	11	8.4
Gender	Male	56	42.7
	Female	75	57.3
Religion	Protestant	36	27.5
	Catholic	30	22.9
	Buddhism	40	30.5
	None	25	19.1
Education	Below Elementary	43	32.9
	Below High school	51	38.9
	Above College	37	28.2
The past occupation	Professional	55	42.0
	Blue color	26	19.8
	Housewife	50	38.2
Current occupation	No	100	76.3
	Yes	31	23.7
Living expenses	Myself	79	60.3
	Support(child, country, others)	52	39.7
Pocket money (won/month)	Below 100,000	41	31.3
	Below 100,000-200,000	40	30.5
	Above 200,000	50	38.2
House	Owner	109	83.2
	Lease or Monthly rent	22	16.8
Children (person)	1-2	37	28.2
	3-4	80	61.0
	Above 5	14	10.8
Living together	Married child	33	25.2
	Single child	32	24.4
	Spouse	50	38.2
	Relatives	2	1.5
	Alone	14	10.7

며, 동거현황은 노인 내외만 살고 있는 경우(38.2%)가 가장 많았다.

2.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 정도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평균 3.71점이었으며 사기는 평균 3.25점, 삶의 질은 3.02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Table 2. Mean score of perceived family support, morale, and quality of life (n=131)

Concept	Mean ± SD(Maximum-Minimum)
Family support	3.71 ± 0.89(5.00-1.36)
Morale	3.25 ± 0.55(4.59-1.71)
Quality of life	3.02 ± 0.46(4.31-1.97)

Table 3. Correlations among perceived family support, morale, and quality of life (n=131)

	Family support r (p)	Morale r (p)	Quality of life r (p)
Family support	1.00		
Morale	.43(.00)	1.00	
Quality of life	.26(.00)	.48(.00)	1.00

3. 노인이 지각한 가족 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지지와 사기($r=.430, p=.00$), 가족지지와 삶의 질($r=.264, p=.00$), 그리고 노인의 사기와 삶의 질($r=.484, p=.00$)과의 관계에서 모두 유의한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4.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 차이검증

1)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지각한 가족지지 차이검증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는 종교($F=3.65, p=.01$), 용돈($F=7.35, p=.00$), 동거현황($F=5.11, p=.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종교가 없는 경우가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더 낮았고 용돈은 20만원 이상인 경우가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더 높았으며 동거현황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인 경우가 지각한 가족지지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Table 4).

2)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사기 차이검증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는 연령($F=3.47, p=.03$), 학력($F=4.76, p=.01$), 생활비 총당($F=11.39, p=.00$), 주거형태($t=10.37, p=.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65-69세인 경우가 사기 정도가 더 높았으며 학력에서는 대학졸업인 경우가 사기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노인의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 차이검증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연령

($F=10.95, p=.00$), 성별($t=5.89, p=.02$), 학력($F=11.79, p=.00$), 과거 직업($F=5.66, p=.00$), 현재 직업($t=11.87, p=.00$), 생활비 총당($F=14.48, p=.00$), 용돈($F=11.75, p=.00$), 주거형태($t=7.72, p=.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서 65-69세인 경우가 삶의 질 정도가 더 높았고 학력에서는 국졸인 경우가 삶의 질 정도가 더 낮았으며 과거직업에서 주부인 경우가 삶의 질 정도가 더 낮았고 용돈에서는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삶의 질 정도가 더 낮게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결과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평균 3.71점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중환자실의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Lim(2000)의 연구에서 4.35점, Choi(1998)의 4.05점, Kim과 Lee(2000)의 3.82점, Kim과 Seong(2002)의 3.77점, Kim(1992)의 입원한 노인의 가족지지 3.73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하였다. 반면 Song(1992)의 청각장애 청소년의 가족지지 3.39점, Hong(2000)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3.19점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청소년이나 중년여성보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가족지지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연구대상자 대부분이 재가노인으로 가족이나 이웃과 더불어 생활함으로써 대화나 관계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족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종교, 용돈, 동거현황이었다. 이는 Shin(1996), Kim과 Seong(2002), Choi(1998)의 연구와 유사하였으며, 이는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노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경제적 역량이며, 다음으로 동거현황, 종교가 영향변인임

을 알 수 있다.

노인이 지각한 사기는 평균 3.25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사기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측정수준이 서로 달라서 평균 점수만으로 비교할 수 없으므로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비교해보면 Rhu(2004)의 연구에서는 평균 2.29점, 재미 한인 단독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Moon(1996)의 연구에서는 2.35점, Lee(1998)의 연구에서는 2.31점, Song(2002)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적 사기가 2.90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자가 재가노인으로 대부분이 가족과 동거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 성당, 노인정 등을 이용함으로써 충분한 가족지지, 사회적 지지가 가족과 친구, 교회 등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사기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력, 생활비 충당, 주거형태이었다. 이것은 Rhu(2004)의 연구와 Song(2002)의 연구에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족지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사기에서도 경제적 상태(생활비 충당)가 사기의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곧, 경제적으로 안정된 정도와 가족과의 친밀도가 노인의 사기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이 지각한 삶의 질은 평균 3.02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 연구(Lyons, 1997)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타당성과 신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나, 국내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SF-36으로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 측정도구를 이용한 논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상태 측정에 이용한 Park(2000)의 가족지지가 노인의 건강행위와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평균 1.73점과 국내 직장인 대상의 Ko 등(1997)의 직장인들의 건강수준 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 연구에서 1.94점으로 본 연구의 삶의 질 평균이 보다 높게 나타나, 이 역시 가족지지와 사기 점수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 특성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학력, 과거 직업, 현재 직업, 생활비 충당, 용돈 및 주거 형태였다. 이는 Park(2000)의 연구에서 성별, 월평균소득, 만성질환 이환여부, 동거 현황에 영향을 미치며, 영국의 지역사회 노인 대상의 Lyons 등(1997)의 연구에서 성별, Choi(1997)의 연구에서 성별, 배우자 유무, 학력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기초해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직업, 생활비 충당, 용돈 및 주거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가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여 가족지지가 높을수록 사기가 높아지며, 사기가 높을수록 삶의 질 또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지지가 높을수록 노인의 사기는 향상되며 삶의 질도 높아진다는 것으로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개념인 가족지지, 사기,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가족지지와 사기 및 삶의 질과의 선행연구가 드물어 다른 연구와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Rhu(2004)의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사기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r=.47, p=.00$)와 Kim(1992)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서 강한 상관관계($r=.64, p=.00$)가 있다는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노인이 노화에 따른 상실감을 극복하고 자아존중감이 회복되면 그들의 삶은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되며, 만족스러운 생활영위와 더불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노인이 비록 신체적으로 의존도가 높다하더라도 노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자존감을 유지해주어야 하며 (Choi, 1998),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도록 동기 유발시키고, 지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지지함으로써 사기를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간호가 요구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

Table 4. Differences in the concep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SD	t or F	p
Family support					
Religion	Protestant	3.50 ^a	.96	3.65	.01
	Catholic	3.98 ^a	.85		
	Buddhism	3.92 ^a	.86		
	None	3.39 ^b	.70		
Pocket money(won)	below 100,000	3.45 ^a	.74	7.35	.00
	below 100,000-200,000	3.53 ^a	1.04		
	above 200,000	4.07 ^b	.74		
Living together	Married child	3.76 ^a	.96	5.11	.00
	Single child	4.02 ^a	.60		
	Couple	3.74 ^a	.82		
	Relatives	3.55 ^a	.90		
	Alone	2.82 ^b	1.03		
Morale					
Age(year)	65-69	3.34 ^a	.52	3.47	.03
	70-79	3.12 ^b	.55		
	Above 80	2.99 ^b	.67		
Education	Below Elementary	3.09 ^a	.52	4.76	.01
	Below High school	3.22 ^a	.60		
	Above College	3.46 ^b	.46		
Living expenses	Myself	3.37	.48	11.39	.00
	Support	3.05	.60		
House	Owner	3.31	.54	10.37	.00
	Lease or rent (M)	2.91	.53		
Quality of life					
Age(year)	65-69	3.15 ^a	.44	10.95	.00
	70-79	2.85 ^b	.40		
	Above 80	2.64 ^b	.36		
Gender	Male	3.13	.42	5.89	.02
	Female	2.93	.47		
Education	Below elementary	2.77 ^a	.38	11.79	.00
	Below high school	3.09 ^b	.45		
	Above College	3.20 ^b	.43		
The past occupation	Professional	3.15 ^a	.44	5.66	.00
	Blue color	3.03 ^a	.49		
	Housewife	2.86 ^b	.41		
Current occupation	No	2.94	.43	11.87	.00
	Yes	3.25	.46		
Living expenses	Myself	3.13	.45	14.48	.00
	Support	2.84	.41		
Pocket money(won)	Below 100,000	2.76 ^a	.39	11.75	.00
	Below 100,000-200,000	3.08 ^b	.39		
	Above 200,000	3.18 ^b	.47		
House	Owner	3.06	.43	7.72	.00
	Lease or rent (M)	2.78	.51		

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된 서술적 상관관계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중소도시 3지역의 종교 단체 모임, 노인정, 친구 모임의 65세 이상 노인 131명으로, 자료수집은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였다. 사용된 연구도구는 가족지지 도구(Kang, 1984), 사기 도구(Moon, 1996), 삶의 질 도구(Ko et al., 1977, SF-36)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대상자의 가족지지와 사기,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가족지지, 사기와 삶의 질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사기, 삶의 질 정도 비교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는 평균 3.71점이었으며 사기는 평균 3.25점, 삶의 질은 3.02점이었다.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사기, 가족지지와 삶의 질, 그리고 노인의 사기와 삶의 질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족지지 정도는 종교, 용돈, 동거현황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기 정도는 연령, 학력, 생활비 충당, 주거형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정도는 연령, 성별, 학력, 과거 직업, 현재 직업, 생활비 충당, 용돈, 주거형태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 노인에 있어 가족지지만 이들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일차 중요 개념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의 사기와 삶의 질에도 서로 관련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인의 질적인 삶의 유지, 증진을 위하여 자녀를 기본으로 하는 가족지지의 지지망 구축으로 사기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고려 할 수 있는 간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노인의 가족지지, 사기 및 삶의 질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2) 노인의 사기에 대한 한국적 개념 개발이 요구된다.

References

-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2006). *A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Dong A Publishing.
- Choi, H. (1997). *Effect of health state on quality of life for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i, Y. A. (1998). *Correlation among perceived family support, self esteem, and preventive health behavioral compli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Choi, Y. H. (2000). *Aged and health*. Seoul: Hyunmunsa.
- Chown, S. M. (1977). Morale, careers and personal potentials. In J. E. Birren & K. W. Schaie (eds.). *Handbook of the psychology of aging*.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e of life stress. *Psychosom Med*, 38(5), 300-314.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behavioral sciences*. New York: Academic Press.
- Hamburg, D. A. (1967). A perspective on coping behavior, *Archives Gen. Psychiatry*, 7(2), 274-284.
- Hong, M. H. (2000). *Correlation among perceived family support, self efficacy, and life style for health promotion for women in middle 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hin University, Busan.
- Kang, H. S. (1984).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effects of reinforcement education for rehabilitation on hemiplegia patients' self-care activ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C. K. & Seong, M. S. (2002). Factors effecting on health promotion for elderly: Based on health concepts and family support. *J Korean Fundam Nurs*, 9(1), 133-143.
- Kim, I. Y. (1992).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self esteem, and powerlessness for elderly pati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T. H., Kim, D. B., Kim, M. A., Lee, Y. S., & Kim, A. S. (1998).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J Korean Gerontol Soc*, 18(1), 150-169.
- Kim, Y. S. & Lee, K. S. (2000). A Study o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mental health of the aged. *J Korean Acad Psychiatr Ment Health Nurs*, 9(1), 79-93.
- Ko, S. B., Jang, S. J., Kang, M. K., Cha, B. S., & Park, J. K. (1997). Reliability and validity on measurement instrument for health status assessment in occupational workers. *Korean J Prev Med*, 30(2), 251-265.
- Lawton, M. P. (1977). "Morale: What Are We Measuring?" In C. N. Nydegger(ed.), *Measuring morale: A guide to effective assessment*. Washington, D.C: Gerontological Society.
- Lee, J. A. (1998). *A Study of friend relationship and general mor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im, J. A. (2000). *Family support and death anxiety of elderly patients in intensive care uni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Lyons, R. A., Crome, P., Monaghan, S., Killalea, D., & Daley, J. A. (1997). Health status and disability among elderly people in three UK districts. *Age Ageing, 26*(3), 203-209.
- Moon, A. L. (1996). Morale among Korean American elders living alone or with a spouse only and its correlates. *J Korean Gerontol Soc, 16*(1), 96-109.
- Park, C. S. (2000). *A study on the influence of family support to health behavior and health status among the ag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Rhu, Y. K. (2004).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morale of the elderly staying at home. *J Korean Acad Nurs, 34*(2), 297-306.
- Shin, D. S. (1996). *A study on the correlation among family support, depression, and physical health status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 Song, B. S. (1992). *Correlation of family support and self esteem for adolescence with hearing difficul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ong, Y. S. (2002). *Correlation among moral, health problem, and subjective health sta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 chun hyang University, Cheonan.
-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3). *Statistics of population in the future*.
- Ware, J. E. & Sherbourne, C. D. (1993). The MOS 36-Item Short Form Health Survey (SF-36). I. Conceptual framework and item selection. *Med care, 30*(6), 473-483.
- Yun, J. H. (2005). *Effects of individual reminiscence therapy on old peoples's depression, morale, and the quality of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